

## 광주 민간공원 특례 '의혹' 재판 본격화

광주지법, 광주시 고위간부 첫 공판 11일 예정  
市 감사위 부당 지시·압력·정보유출 등 조사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2단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시 전 간부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된다.  
2일 광주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 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오는 11일 오전 10시10분 A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열린다.  
A 전 국장은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첫 공판기일은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 증거 채택여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A 전 국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기도 전에 평가표를 광주시의원 등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

영렬 감사위원장과 공모해 유사사업실적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우선협상자 변경과정에서 부당하게 참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경실련으로부터 광주시가 추진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7개월 넘게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시 감사위가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직후 특정감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나 압력, 정보유출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도시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도 자진반납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광주시청 3차례, 광주도시공사 1차례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A 전 국장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A 전 국장과 공모 의혹이 있는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A 전 국장에 대한 재판이 본격화함에 따라 공모 혐의를 받고 있지만 기소되지 않은 정 부시장과 윤 감사위원장 등의 기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큰고니 강진만서 '비상' 지난 2일 강진군 강진만(灣)에서 월동 중인 큰고니(천연기념물 제201-2호) 무리가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가우도를 배경으로 힘차게 날고 있다.

## 화순 만연산 오감연결길 3.1km 구간에 야생화단지

올해 7억 투입 야외학습장 등 조성

화순군은 만연산 오감연결길 3.1km구간에 야생화단지과 야외학습장을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치유의 숲 센터에서 수만리 생태숲으로 이어지는 오감연결길은 해발 668m 만연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울창한 숲길이다.

참나무, 소나무, 편백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경사가 완만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  
무등산국립공원과 무등산을 도는 무등길로 연결돼 있으며, 군은 올해 7억원을 들여 진달래, 구절초

등 37종의 야생화를 심을 예정이다.  
화순읍과 인접한 만연산 오감연결길을 비롯해 치유숲길(3.3km), 치유의 숲 센터, 동구리 호수공원으로 이어지는 치유의 숲은 올해 방문자가 2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만연산 치유의 숲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치유, 휴양, 힐링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 전남도,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내년 1월29일까지 접수

한우·돼지·젖소·닭·오리 대상...1곳당 15ha 규모

전남도는 내년 1월29일까지 축산 약취·질병 문제 해결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20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 대상 축종은 한우, 돼지, 젖소, 닭, 오리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은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축사와 가축 분뇨 처리 및 방역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오염과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 지향적 최첨단 축산단지다.  
시범단지에는 첨단축산시설과 최적의 데이터 기반 생산시스템,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체계적 방역시설, ICT 장비 사용 및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실습형 교육장 등이 설치된다.

시범단지에는 첨단축산시설과 최적의 데이터 기반 생산시스템, 냄새 없는 축산환경 조성, 질병 사전 차단을 위한 체계적 방역시설, ICT 장비 사용 및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실습형 교육장 등이 설치된다.  
이런 공모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전국 5개소를 선정한다. 개소당 15ha규모로 4년간 695억~795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축

종별 특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시군에서 참여 농가를 확보해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하고,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 및 대면 보고용 발표 자료를 작성해 시·도를 경유해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지는 농식품부에서 방역·분뇨·ICT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평가, 구두(PPT) 발표 등을 종합 평가 후 최종 선정한다.  
주요 평가 내용은 부지확보 및 참여농가 확보,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다.  
참여 농가는 임지제한지역 내 무허가 축사 보유자, 약취 및 수질 오염 등으로 가축 사육이 불가능한 농가, 마을 주변 축산농가, 청년 창업농가 등이다.  
배유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미래지향적 환경친화형 첨단 축산단지를 조성해 지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 모델을 구축토록 하겠다"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까지 2개소를 조성할 목표"라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기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예복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